

광주시,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 첫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용적률·비율 개선 조례 시행 고밀아파트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교통난 등 예방

광주시가 대규모 고밀아파트에 따른 도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스카이라인 회복에 나선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상업비율을 상향 개정해 도시계획 조례를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규모 고밀아파트, 상업단지 고밀도 주거단지화 등에 따른 학교시설 부족, 교통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광주시는 각화동, 쌍암동, 광천동, 누문동 등 주거복합건물이 건축되는 상업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기존 운영제 도입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분석해 상업지역이 대규모 주거지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주거 및 상업용 용적률을 비율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지만, 전체 용적률만이 명시돼 실제 인·허가 시 아파트 부분에 대해 주거용 용적률 400%를 훨씬 초과하는 부작용이 우려

됐다.

특히 각화동 등 일부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의무면적 10% 이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모두 채워, 상업지역에서 고밀아파트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년 간 시행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제도'를 폐지하고, 타 광역시에 앞서 선도적으로 개선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제도'를 마련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상업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 최대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도에는 준주거지역 용적률과 동일하게 400%로 차등 적용 △상업지역 본래의 용

도에 맞도록 하기 위해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을 10% 이상에서 15%로 조정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거시설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밀아파트가 감소하고 스카이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 지정목적에 맞게 주거시설을 건립하면서 동시에 상업시설도 조화롭게 활성화 하는 내용이다"며 "대규모 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밀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광주의 도시기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데프네 아야스·나타샤 진발라 2020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이사회서 감독 선정...2020년 9월 비엔날레 개막

2020년에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큐레이터인 데프네 아야스(Defne Ayas)와 나타샤 진발라(Natasha Ginwala)가 선정됐다.

광주비엔날레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2020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아야스와 진발라를 선정했다.

광주비엔날레 이사진 및 뉴욕 디아트센터 디렉터 제사카 모건, 베를린 그로피우스하우스 미술관장 스테파니 로렌탈, 동경 모리미술관 부관장 카타오카 마미, 상해 프로젝트 이용우 디렉터, 전시기획자이자 미술사기인 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가 이들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지역에서 전시의 형식을 과감히 실험한 기획자로 역사에 침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협업의 매력과 통섭적 체계를 구사한 기획 능력이 뛰어나 광주비엔날레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다층적으로 펼쳐낼 적임자"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네덜란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문화기관 및 연구기획 단체 등에

서 활동한 이슬람 출신의 데프네 아야스는 동시대 미술, 매체, 정치의 교차점을 탐구한 전시를 선보여 왔다.

나타샤 진발라는 인도 출신의 젊은 기획자로 현재 베를린 그로피우스하우스 미술관의 협력 큐레이터로 있으며 다수의 국제제를 기획하고 미술 분야 기고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두 명의 공동 예술감독은 전시, 퍼포먼스, 출간 플랫폼으로 이뤄진 역동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의 격변 등 모든 범위를 검토하는 예술적 접근과 과학적 방법론을 탐구할 작가, 과학자, 사상가 등을 초대해 다양한 담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술과 퍼포먼스 신작을 지원하는 과정을 주요 과제로 삼고 사회정치적 현실, 복합적인 역사학, 문화의 지식 체계, 선구적 전통 등을 전시로 구현할 계획이다.

제13회 2020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9월 개막 예정이다.

/유조윤 기자 moon@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협약식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홀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건설부문 후원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정창선 중흥건설회장,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염방열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창선 중흥건설회장, 송종만 중흥건설전무, 신경식 중흥건설전무, 김성의 남도일보 대표이사 /광주시 제공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 시범운영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 총 4천840㎡ 규모, 5월 정식 개장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북구에 들어선 드론 비행연습장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북구는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인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드론산업육성기반 마련과 드론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북구 드론 비행연습장'을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드론 비행연습장'은 대촌동 일원에 4천840㎡ 규모로 조보자 구역 1천㎡, 레이싱 및 산업테스트 구역 3천840㎡로 조성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해 5월 중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 이외에도 광주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민간 산업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분야 도입방안을 구상중이며, 교육기관과 연계한 드론 체험교실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해 비행제한

구역 밖에 위치한 장소를 찾아내야 했던 광주지역 드론 동호회, 드론 전문교육기관, 드론 기업체 등의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비행연습장 이용 신청은 북구청 민생경제과 (☎062-410-6112)로 문의하면 되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5인 이상 단체,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드론 기업 위주로 접수 받고 정식개장 후에는 주민과 기업이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인 북구청장은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으로서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민선 7기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던 만큼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사업과 함께 드론 비행연습장이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광주시, 유희지 활용해 도시공원 만든다

1곳 당 1천~9천만원 지원 녹지·휴식 공간으로 조성

광주시가 도심 유희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광주형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20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생활권 주변 주민이 참여하는 35개 안팎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녹지공간을 확장

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주시만의 사업이다.

유형별로 200㎡ 이상~1천㎡ 미만의 공공정원에 1억원까지, 100㎡ 이상~200㎡ 미만의 마을정원에는 2천만원, 100㎡ 미만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신청한 모두 40개 단체 가운데 마을·생활정원 20곳, 공공정원 5곳을 선정했다.

공공정원은 동구 서석동 주민 커뮤니티 산책정원, 서구 무지개 뜨는 하늘정원, 남구 봉선3어린이공원, 북구 침포가 있는 정원, 광산구 수안지구 꽃피는 정원 등이다.

마을·생활정원으로 지난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꽃을 담아가는 아름다운 정원마을, 풍암동 주민자치회의 풍암달 갈매이

덩굴 가든 사업, 봉선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십시일반 나눔마을 정원디자인 등 모두 20곳이다.

광주시는 이들 선정된 곳 가운데 공공정원에 각각 9천만원, 마을·생활정원에 각각 1천만~2천만원을 지원해 공원을 조성하도록 방침이다.

자치구와 공모단체가 시설계획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 확대와 함께 마을 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도민일보가
능력있는 지역기자를 모집합니다.

고흥, 해남

전화문의: 062)227-0000 / 010-9556-0000 (직통)
팩 스: 062)227-0084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사무실 임대

- 지하철 농성역 4번출구 옆
- 화정동 776-12 3층 60평
- 광주버스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CGV영화관 인접
- 광주 새우리병원 건너편
- 2층 북교당 한약방 운영중

☎ 062)362-6900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